

‘호남고속도 확장’ 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여부 주목

〈동광주IC-광산IC 구간〉

現 정부·광주시 50대50 사업비 구조

정준호 “사회적 환경 변화로 증액돼

방음터널 정부 비율 확대해야” 지적

道公 “재협의의 의견 낼 용의 있어”

광주에 유리하게 조정 가능성 열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 부담 비율이 기존 ‘정부 50%·광주 50%’ 구조에서 광주시에 유리하게 재조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사업의 정부 예산 부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합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다시 협의한다면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로공사 국감에서 “2021년 도로공사 방침이 변경됐고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12개소가 신규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이는 광주시의 자체 의지가 아닌 정부 차원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방음터널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 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진규 사장은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나 부담 비율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 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도 (새로운)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는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총예산이 2천762억원으로 추산됐으나 2023년 설계에서는 7천9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총 5천100억원 가량 증액됐다.

Today

광주·전남청 ‘관리 미제사건’ 매년 늘어 6년

기획-‘미래대비하자’ 국민연금 관리법 12년

2025 KIA 흔들린 시즌속 빛나는 대기록 16년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방음터널 12개소 설치비로 약 3천400억원이 소요된다. 2021년 방음벽 높이와 방음터널 설치 관련 권고 방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수립됐고, 2022년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화재 사건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급증했다.

방음터널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례는 호남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속도로 확장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공 중인 영동고속도로(안산-북수원) 확장 공사의 경우 방음터널 230m 설치로 공사비가 142억원 증액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 부담은 현재 정부 50%(국비 20%, 도로공사 30%), 광주시 50%다. 이는 2012년 6월 최초 논의 당시 정부 80%, 광주시 20%로 협의됐으나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 재협의의 요구로 인해 최종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사업비 부담 재협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끌어낸 만큼 향후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부담 비율 확대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사업은 광주시가 최소한의 시비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공사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입장을 고수하다 올해 정부 추경안에서 국비 379억원이 전액 삭감돼 중단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후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확장 공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광주시가 한발 물러섰고, 정부 2차 추경 예산에서 국비 183억원을 확보해 지난달 22일 착공했다.

한편, 동광주 IC부터 광산 IC까지 총 11.2km 구간을 4차로에서 6·8차로로 늘리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용부 IC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 제기와 북부·광산 지역의 만성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수십년 전부터 진행돼 온 협의의 결과물이다.

확장 대상 구간은 광주 외곽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면서도 도심 도로의 기능을 겸해 교통량이 폭증한 곳이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약 14만대로 적정 통행량 5만1천300대의 약 27배에 달해 전국 최악의 교통 정체 구간 중 한 곳으로 꼽혀왔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혼잡도를 평가하는 5단계 등급에서 최하위인 F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진수·변은진 기자



‘땅끝마을서 화려한 부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남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 우승자 김세영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세영, 고향 전남서 5년 만에 LPGA 제패

〈영암 출신〉

BMW챔피언십 우승…통산13번째 정상

하타오카 4타차 꺾고 ‘와이어 투 와이어’

영암 출신 김세영이 ‘고향’ 전남에서 약 5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천78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 넷째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84타로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20언더파 288타)를 제치고 우승했다.

▶관련기사 5면

1라운드부터 선두를 내달린 김세영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하며 우승 상금 34만5천달러(약 4억9천200만원)를 차지했다.

김세영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건 통산 13번째이며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약 5년 만이다.

해남에 인접한 영암이 고향인 김세영은 안방에서 우승 삼패인을 터뜨리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올 시즌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우승은 2월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의 김아림, 3월 포드 챔피언십의 김효주, 5월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의 유혜란, 6월 2인 1조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의 임진화-이소미, 이달 초 롯데 챔피언십의 황유민에 이어 6번째다.

한국 선수가 한 시즌 LPGA 투어 6개 대회 이상에서 우승한 건 2021년(7개) 이후 4년 만이다.

아울러 김세영의 우승으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강세를 보이는 전통도 이어졌다.

1회 대회였던 2019년엔 장하나, 2021년엔 고진영이 우승했고 2022년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고, 2023년엔 호주 교포인 이민지가 우승했다.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리니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첫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 그룹에 4타 차로 앞섰던 김세영은 이날 경기 초반 고전하며 추격을 허용했다.

3번 홀(파3)에서 약 1m 거리의 짧은 파 퍼트를 놓쳐 보기를 범하는 등 초반 4개 홀에서 한

타를 잃었고, 그 사이 노예림(미국)이 2타를 줄이면서 두 선수의 격차는 한 타 차로 줄었다.

그러나 김세영은 5번 홀(파4)부터 무섭게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두 번째 샷을 홀 2m 앞에 붙인 뒤 이날 경기 첫 버디를 낚았고, 6번 홀(파5)과 7번 홀(파4)에서 버디 행진을 이어갔다.

그는 9번 홀(파4)에서도 먼 거리의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노예림과 격차를 4타 차로 벌였다.

김세영은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파 세이브 행진을 펼치던 김세영은 14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고, 그 사이 노예림은 보기 1개를 범하며 오히려 공동 3위 선수들에게 따라잡혔다.

이후 김세영은 남은 홀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연으로 큰 위기 없이 우승을 거뒀다.

김아림은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안나린과 최혜진은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7위, 김효주와 이소미는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연합뉴스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승환 대표이사